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8, Vol. 7, 129-140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과의 갈등

이 광 혁

University of New England

하 현 옥

동강대학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갈등의 수준이 건강한 조부모와 사는 대학생들보다 더 높다는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MaloneBeach, DeGnova, & Otani, 1998)와 동일한 연구 절차를 사용하여 한국의 부양가정에서는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노인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 부양자의 자녀인 대학생 36명과 건강한 노인과 함께 사는 대학생 54명이었으며,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갈등,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갈등, 심리적 안녕, 그리고 우울증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종속 측정치 모두 두 집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Mr. Kwang-Hyuk Lee, School of Psychology, University of New England, Armidale, N.S.W., 2351, Australia 로 하시거나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ghyoun@chonnam.chonnam.ac.kr로 하시길 바랍니다.

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MaloneBeach 등(1998)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또 미국인 대학생들보다 갈등이 훨씬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Key Words: 가족과의 갈등, 노인 부양, 부모와의 갈등, 심리적 안녕감, 우울증]

의술을 비롯한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20세기 중반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근대 문화권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의 증가와 정비례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인들은 대다수가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 (Couper, 1989).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안의 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의존성이 커질 때 가족 구성원들은 그 노인을 부양하게 되며, 또 그러한 부양의 상황에서 가족들은 부담감(caregiving burden)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해 개인적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가족들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들 간에도 대화나 감정을 표출시킬 수 있는 기회 등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족의 체계도 위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양 상황에서 측정하는 우울증, 불안, 심리적 안녕, 갈등, 신체질환 등은 부담감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윤가현, 1998; Aronson, Levin, & Lipkowitz, 1984; Quayhagen & Quayhagen, 1988).

지금까지 노인 환자의 부양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담을 측정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주 부양자(primary caregiver)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주 부양자란 부양의 상황에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노인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에서 며느리들이 노인 환자들의 주 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많은 연구들은 주 부양자들이 겪고

노인 부양 가족 대학생의 갈등

있는 긴장이나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이 매우 심하여 그들의 상당수가 타인의 보호나 관심을 받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희생자(hidden victim)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윤가현, 1998; Chenoweth & Spencer, 1986; Deimling & Bass, 1986; Quayhagen & Quayhagen, 1988; Schulz & Williamson, 1991).

물론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은 가족구성원 중 주 부양자와 같은 특정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주 부양자자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른 가족들과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Schulz & Williamson, 1991; Semple, 1992). 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 자녀는 부양 부담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지만, 그 성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노인환자가 아니라 주 부양자의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상당히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 (Thompson, Futterman, Gallagher-Thompson, Rose & Lovett, 1993). 만약 주 부양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직장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내, 어머니, 주 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Quayhagen & Quayhagen, 1988).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 부담이 가족간의 갈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결과들은 주 부양자가 아닌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부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주 부양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그들 가족들의 갈등 문제는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연구들은 주 부양자의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들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Creasey와 Jarvis(1989)는 부양 부담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아버지와의 관계 및 환자인 조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Beach(1997)는 청소년 자녀들이 주 부양자인 어머니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했으며, 또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칭찬과 지지를 자주 받았다고 긍정적인 차원의 가족 관계를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양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가족 갈등이 증가될

수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의 자아 발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MaloneBeach, DeGenova, 그리고 Otani(1998)는 주 부양자의 심리적 고통이 그들의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는지, 또한 그 자녀들이 가족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곧 그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가정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돌보는 미국 가정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가족과의 갈등, 심리적 안녕, 그리고 우울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이나 우울증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는 없었으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다른 대학생들보다 부모나 가족간의 갈등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MaloneBeach 등, 1998).

MaloneBeach 등(1998)은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와 잦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대간 상호의존이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부모나 가족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MaloneBeach 등(1998)과 동일한 연구 절차를 사용하여 미국사회보다 개인의 독립성이 덜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의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 문화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신의 부모가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대학생들 중에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여부에 따라 그 대학생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나 가족간의 갈등, 심리적 안녕, 우울증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전남 지역 4개 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였던 대학생 90명이었고, 그 중 남자 17명, 여자는 73명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대학 1학년과 2학년생이었으며, 나이는 조부모가 환자인 경우의 학생들이 평균 19.22세 ($SD = 2.22$) 그리고 건강한 조부

노인 부양 가족 대학생의 갈등

모를 둔 학생들이 평균 19.44세 ($SD = 1.47$)이었다. 그들은 모두 부모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혼이었다.

노인환자를 둔 학생 집단과 건강한 조부모를 둔 학생 집단의 나이, 교육연한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자의 집단은 독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조부모들을 평균 5.26년 ($SD = 5.51$) 정도 부양하고 있는 주 부양자의 자녀들이었으며, 후자의 집단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부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있었다 (12명은 시간제 근무; 1명 전일 근무).

MaloneBeach 등(1998)처럼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서 자료의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주고서 며칠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조사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는 우선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을 찾아낸 다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가를 물었다. 그들의 조부모가 매우 건강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할 경우 또는 조부모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여 타인의 조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치매를 겪고 있거나 신체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생활에 지장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둔 학생들이 선정되었다.

조사도구

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갈등을 두 방향에서 측정하였다.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관계로부터 지각된 갈등이었다.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지각된 갈등척도는 28문항으로 구성된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ISSB; Barrera, Sandler, & Ramsey, 1981; Krause, 1987)를 MaloneBeach 등(1998)이 수정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MaloneBeach 등(1998)이 사용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갈등을 진술하는 문항들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반응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에서 5 = 매우 그런 편

이었다 까지).

곧 부모와의 관계로부터의 갈등척도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갈등척도 모두 총점의 범위는 28-14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갈등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n = 90$)는 각각 .92와 .93이었다.

우울증. 조사대상자들의 우울증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Radloff, 1977)로 측정되었다. CES-D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한 기분을 토대로 현재의 우울증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네 가지 반응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반응 영역은 일주일 동안에서 우울한 기분을 경험한 날이 전혀 없거나 1일 정도이면 0, 하루에서 3일 정도이면 1, 3일에서 5일 정도이면 2, 그리고 5일 이상이 있을 때 3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곧 CES-D의 총점 범위는 0-6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ES-D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n = 90$)는 .87이었다.

안녕감. Ryff (1989)는 자율성, 환경의 통제,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생의 목적, 그리고 자기 수용 등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84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Likert식 6점 척도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6 = 매우 그렇다 까지). 본 연구에서 보인 안녕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결 과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대학생 집단(부양 집단)과 건강한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 집단(건강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갈등, 심리적

노인 부양 가족 대학생의 갈등

안녕,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기초 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MaloneBeach 등(1998)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척도들에 대한 문항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네 가지 종속변인 (부모와의 갈등, 가족관계의 갈등, 심리적 안녕, 그리고 우울증)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인 변량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Wilk의 Lambda 계수는 유의하였으나 ($F = 2.40, p < .05$), 모든 종속변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인 갈등의 점수가 MaloneBeach 등(1998)에서 보인 갈등의 점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부양집단과 건강집단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갈등의 점수는 미국인이 각각 48.9와 41.6이었던 반면, 한국인의 반응은 81.5와 76.8이었다. 또 부모와의 갈등에서도 미국인이 각각 46.9와 39.4이었던 반면, 한국인의 반응은 69.3과 65.5에 해당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집단이 미국인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 점수도 낮은 편이었으며 (부양집단이 351.8 대 388.6, 정상집단이 341.5 대 390.0이었다), 우울증 점수도 약간 더 높았다 (부양집단이 16.6 대 14.1, 정상집단이 14.1 대 13.2 이었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항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 다변인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모든 척도에서 각 문항들과 전체 점수와의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30 이하의 문항들을 제외시킨 후 분석하였다. 우선 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을 묻는 척도들에서는 그 상관계수가 .30이하인 문항이 없었다. 심리적 안녕 척도는 문항분석에서 총 84문항 중 30문항(예, 주변 사람들과 더 비슷해지기 위해 나는 때때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편이다)이 제외되었다.

우울증 척도인 CES-D에서는 두 문항(본인도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까? 와 모든 것이 노력의 대가라고 느꼈습니까?)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 척도는 50 문항 그리고 CES-D는 18 문항으로 줄어들었고, 심리적 안녕 척도의 경우 부양집단과 정상집단의 평균(SD)은 178.86(24.13)과 172.29(18.56)로 그리고 우울증 척도의 경우는 13.53(7.91)과 11.22(9.01)로 감소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바뀐 점수들을 근거로 다변인 변량분석(MANOVA)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Wilk의 Lambda 계수는 제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p = .072$), 모든 변인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논 의

MaloneBeach 등(1998)은 조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미국 대학생들이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지각한 갈등, 우울증,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조부모를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대답한 대학생들이 건강한 조부모가 계신 대학생들보다 그러한 갈등의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난 반면, 우울증이나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MaloneBeach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MaloneBeach 등(1998)의 연구와 유사한 절차와 방법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인들의 경우 안녕감과 우울증의 반응에서는 MaloneBeach 등 (1998)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양집단과 정상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갈등의 지각에서는 문화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부모나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은 노인환자와 함께 사는 대학생들이나 정상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들간에 차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MaloneBeach 등(1998)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미국 문화권에서는 주 부양자들의 자녀들이 부양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 살아가는 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정에서 노인 환자를 돌보는 일을 포함하여 제반 가사를 주 부양자(주로 며느리)에게 일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나 건강한 노인을 모시고 사는 대학생들이나 심리적 부양 부담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집안 일을 시키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한 우리 문화권에서의 이러한 해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노인 부양 가족 대학생의 갈등

그렇지만 상기의 해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할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한국인들의 갈등 점수가 부양집단과 정상집단 모두 미국인들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국인의 자료와 한국인의 자료를 통계적인 분석으로 통하여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갈등 척도의 총점의 범위가 28-140점이었을 때의 두 집단간의 차이는 현격하였다. 즉 미국인의 부양집단 대 정상집단은 가족 갈등이 48.9 대 41.6 그리고 부모 갈등은 46.9 대 39.4이었던 반면, 한국인의 경우 가족 갈등이 무려 81.5 대 76.8 그리고 69.3 대 65.5이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하여 노인의 건강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집안에 조부모가 계시지 않는 젊은이들도 가족이나 부모와의 갈등이 심한가에 대한 자료는 구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들도 갈등의 수준을 높게 보고한다면 굳이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한국적인 특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서구사회는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문제가 동양사회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갈등 점수의 차이를 설문지 문항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족간의 갈등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내용 중에는 “당신의 부모는 (혹은 가족이나 친척은) 차를 태워주거나 빌려주었습니까?” 라는 문항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몇 가지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는 경향으로 갈등의 점수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개의 문항으로부터 두 문화권간의 점수 차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차이는 대부분의 한국대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경제적 혹은 정신적으로 부모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에서는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미국사회보다 더 차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 문화적인 차이는 실제로 노인성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주 부양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윤가현, 1998). 그렇지만 본 연구의

<Table 1> Means and *SDs* of Demographic Variables, Conflict, Well-being, and Depressive Affect

Group		Caregiving	Noncaregiving
Sex			
Men	<i>N</i>	8	9
Women	<i>N</i>	28	45
Age	<i>M</i>	19.22	19.44
	<i>SD</i>	2.22	1.47
Years of Education	<i>M</i>	13.67	13.42
	<i>SD</i>	1.04	0.82
Employment Status			
Full-time	<i>N</i>	1	0
Part-time	<i>N</i>	4	8
Unemployed	<i>N</i>	31	46
Conflict			
Family	<i>M</i>	81.50	76.78
	<i>SD</i>	18.07	15.11
Parent	<i>M</i>	69.31	65.48
	<i>SD</i>	17.79	15.21
Well-being	<i>M</i>	351.78	341.50
	<i>SD</i>	32.11	29.10
Depression	<i>M</i>	16.61	14.13
	<i>SD</i>	13.53	9.14

노인 부양 가족 대학생의 갈등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 먼저 비교 문화적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조사도구가 아니라 MaloneBeach 등(1998)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비교 문화적 연구를 계획하였더라면 양 문화권에 적용될 수 있는 조사도구가 이용되어야 했다. 또 한국인들의 갈등이 미국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부양집단과 정상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조부모가 계시지 않는 대학생들의 반응과 비교하였을 때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가현 (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 75-90.
- Aronson, M., Levin, G., & Lipkowitz, R. (1984). A community-based family/patient group program for Alzheimer's disease. *The Gerontologist*, 24, 339-342.
- Barrera, M., Sandler, I., & Ramsey, T.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35-447.
- Beach, D. (1997). Family caregiving: The positive impact on adolescent relationships. *The Gerontologist*, 37, 233-238.
- Chenoweth, B. & Spencer, B. (1986). Dementia: The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6, 267-272.
- Couper, D. P. (1989). *Aging and our families*.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Creasey, G. L. & Jarvis, P. A. (1989). Grandparents with Alzheimer's disease: Effects of parental burden on grandchildren. *Family Therapy*, 16, 79-85.
- Deimling, G. T. & Bass, D. M. (1986). Symptoms of mental impairment among elderly adults and their effects on family

-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 778-784.
-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349-356.
- MaloneBeach, E., DeGenova, M., & Otani, H. (1998). Young adult children in caregiving families. *한국노년학연구*, 7, 5-16.
- Quayhagen, M. P. & Quayhagen, M., (1988). Alzheimer's Stress: Coping with the caregiving role. *The Gerontologist*, 28, 391-396.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chulz, R., & Williamson, G. (1991). A two year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on among Alzheimer's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6, 569-578.
- Semple, S. (1992). Conflict in caregiving families: Its dimensions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32, 648-655.
- Thompson, E., Futterman, A., Gallagher-Thompson, D., Rose, J., & Lovett, S. (1993). Social support and caregiving burden in family caregivers of frail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8, S245-S254.

(논문게재승인일 : 1998년 11월 11일)